

2026년 8월 1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반등의 연속성 확보 구간

이번 주 코스피는 1) 7월 FOMC 의사록 이후 미국 금리 향방, 2) 미국 8월 제조업 PMI, 7월 산업생산, 한국 8월 수출(~20일) 등 주요 경제지표, 3)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4)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변화, 5) 단기 차익실현 물량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대 안착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7,500pt).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반등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 일단 8월 1~2주차에 비해 대형 메이저급 이벤트가 부재하다 보니, “지난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 속도조절 압력”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를 반등 장세 종료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현재는 호재성 재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 따라서 주중 예정된 7월 FOMC 의사록, 미국 경제 지표, 한국 수출 지표 등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위험선호심리와 외국인의 순매도 중단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변동성 지표의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전망(15일 VKOSPI 55pt로 8월 이후 -33.6%).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1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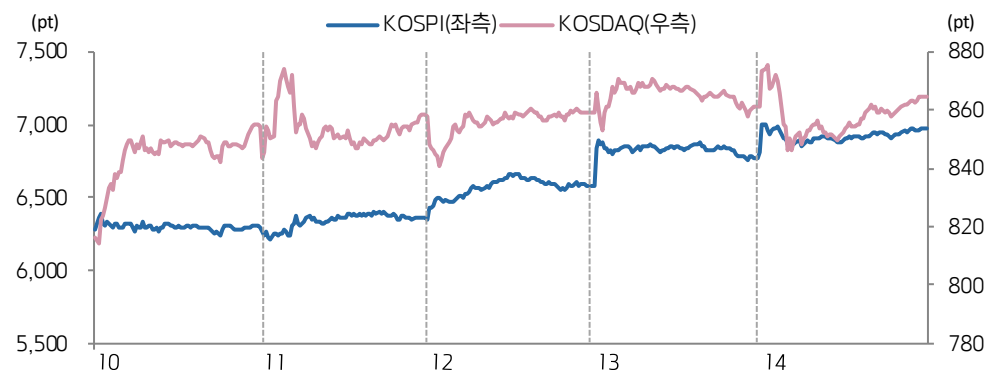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국 소비자·생산자물가 진정과 AI 관련 기업 실적 호조로 반도체 대형주가 재평가 되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7주 연속 하락을 끝내고 8주 만에 반등 마감(KOSPI +11.49%, KOSDAQ +8.24%)

주 초반에는 직전 주 미국 7월 고용 부진으로 9월 금리인상 확률이 낮아진 데다 중동 장기 휴전에 무게가 실리며 안도감이 형성됐으나, 반도체 대형주에 매물이 출회되며 자금이 중소형주로 이동해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 이후 8월 상승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한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되고 낸드 가격 반등 소식이 더해지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반등해 6,300선을 회복. 주 중반에는 엔비디아의 5,000억 달러 AI 자금 조성이 안정적 조달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테마섹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검토 보도가 겹치며 외국인 매수가 집중돼 연이어 급등. 이어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에 부합하고 코어위브 등 AI 기업 호실적으로 수익화 우려가 완화됐으나, 옵션 만기 매물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남. 주 후반에는 생산자물가까지 진정되며 금리인상 확률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연휴 앞둔 경계 매물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7,000선 코앞에서 마감.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인식과 AI 투자 지속성 확인이 위험자산 선호를 되살린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수급 구조 변화도 영향을 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반도체 대형주 쓸림이 완화되며 지수 변동성이 진정됐고, 해외 언론이 한국 증시의 강세장 재진입과 주도주 회복을 다루는 등 대외 시각도 개선됨. 외국인은 1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마지막 거래일에도 기관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3조 원대 순매수를 기록해 지수 상승을 뒷받침함. 다만 예탁금이 정체된 가운데 신용잔고만 늘며 단기 자금 비중이 높아졌고, ADR 기준 코스피는 과매수권에 진입, 코스닥은 근접.

업종별로 전기/전자(+16.49%), 제조(+13.52%), 의료/정밀기기(+11.57%), 기계/장비(+8.87%)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3.86%), 음식료/담배(-3.17%), 오락/문화(-2.07%), 운송/창고(-1.3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6조 5,470억 원)은 제조(+5조 8,139억원), 전기/전자(+4조 5,473억원), 금융(+4,983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7,719억원)은 전기/전자(+2조 1,706억원), 제조(+1조 2,823억원), 건설(+865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8월 17일	월	일본	GDP 성장률 (QoQ, 잠정치)	2 분기	0.5%	0.5%
		중국	산업생산 (YoY)	7 월	4.9%	5.3%
			소매판매 (YoY)	7 월	1.5%	1.0%
			고정자산투자 (YTD YoY)	7 월	-6.2%	-5.7%
			실업률	7 월	5.1%	5.0%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8 월	10.0	15.6
		휴장	한국(광복절 대체)		-	-
8월 18일	화	미국	건축허가건수 (MoM)	7 월	-0.2%	-2.6%
			주택착공건수 (MoM)	7 월	-5.7%	19.0%
			산업생산 (MoM)	7 월	0.3%	0.1%
			설비가동률	7 월	76.3%	76.1%
			수입물가지수 (YoY)	7 월	-	7.1%-
			수출물가지수 (YoY)	7 월	-	10.2%
		실적	KT&G, 이수페타시스		-	-
		실적	홈플러스		-	-
8월 19일	수	EU	CPI (YoY, 최종치)	7 월	2.9%	2.9%
			근원 CPI (YoY, 최종치)	7 월	2.5%	2.5%
		공개	FOMC 의사록(오전 3 시)		-	-
		실적	타겟, 아날로그 디바이스		-	-
		실적	삼양식품, LS		-	-
		행사	AI 서밋 서울&엑스포(~21 일)			
8월 20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8 월	25.0	41.4
		실적	월마트, 알리바바, 디어 앤 컴퍼니		-	-
		공개	FOMC 의사록(오전 3 시)		-	-
8월 21일	금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7 월	-	8.6%
			수출(~20 일) YoY	8 월	-	52.3%
			수입(~20 일) YoY	8 월	-	20.0%
		미국	S&P 제조업 PMI (잠정치)	8 월	53.7	53.9
			S&P 서비스업 PMI (잠정치)	8 월	53.9	54.6
		행사	미국 옵션 만기일		-	-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7월 FOMC 의사록 이후 미국 금리 향방, 2) 미국 8월 제조업 PMI, 7월 산업생산, 한국 8월 수출(~20일) 등 주요 경제지표, 3)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4)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변화, 5)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7,000pt대 안착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500~7,500pt).

국내 연휴기간(14~17일)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7월 소매판매 쇼크(MoM, -0.6% vs 컨센 +0.1%), 트럼프의 미-이란 MOU 연장 거부 발언에 따른 유가 강세 및 금리 상승 등 매크로 부담에도, 엔트로픽의 2분기 매출 호조(109억달러), 13일 중장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한 샌디스크 효과 지속 등에 힘입어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2거래일 누적 등락률 다우 -0.7%, S&P500 -0.7%, 나스닥 -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

현재 코스피는 7월 말 저점 대비 약 24% 상승하면서, 빠른 주가 복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 지난 주 코스피 11%대 급등을 견인한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이나(지난주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6.6조원), 코스피 26개 업종 중 21개 업종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올 상반기 중 몇 차례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 반도체 쏠림 현상”이 빈번했으나, 현재는 “외국인 순매도 중단 후 방향 전환 + 다수 업종의 반등 온기 확산”의 성격으로 바뀐 점은 시장 내부의 체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반등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 일단 연휴기간 중 미국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 강세가 주 초반 국내 증시의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 다만, 주중 일정을 보면 8월 1~2주차에 비해 대형 메이저급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금리, 유가 등 매크로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는 만큼, 주 초반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회 -> 속도조절 압력”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는 함.

하지만 이를 반등 장세 종료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현재는 호재성 재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 결국, 주중 예정된 7월 FOMC 의사록, 미국 경제지표, 한국 수출 지표 등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위험선호심리와 외국인의 순매도 중단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변동성 지표의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전망(15일 VKOSPI 55pt로 8월 이후 -33.6%).

7월 FOMC 의사록(19일)의 경우, 7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그렇지만 7월 의사록에는 7월 고용 쇼크, 7월 CPI 둔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따라서, 이번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이보다는 의사록 발표 이후 유가 변화(미-이란 협상 관련), 빅테크들의 자금조달 뉴스플로우와 연계된 시장 금리의 향방을 주시해 나가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내에서는 8월 수출(~20일)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 지난 8월 1~10일까지 데이터상 전체 수출(YoY 7월 +62.8% -> 8월 45.3%)과 반도체 수출(YoY 7월 +178.8% -> 155.4%)이 증가율 측면에서는 둔화됐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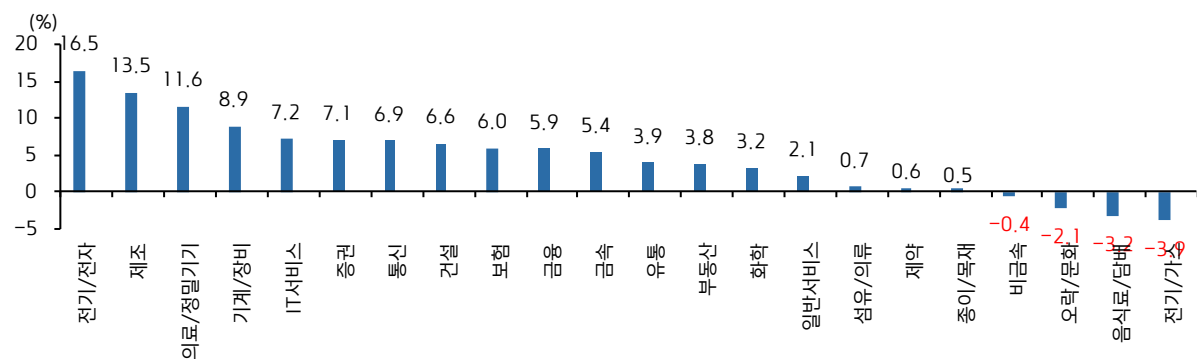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 수출 40%대 증가, 반도체 수출 150%대 증가와 같이 절대적인 성장 모멘텀은 견고하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 또 이미 반도체 실적 성장을 및 코스피 이익 증가율 피크아웃 가능성을 7월 폭락을 통해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번 8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 절대적인 수출 증가세의 건조함이 확인될 시, 지난주 뒤늦게 반등 대열에 합류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는 주중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7,000pt대 안착에 나설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977.94	2.4	11.5	1.8	65.6
대형주	7,628.32	2.5	12.1	1.2	74.3
중형주	4,176.14	1.8	4.9	8.5	12.2
소형주	2,424.16	1.4	4.0	8.5	-3.7
코스피 200	1,098.18	2.5	12.7	0.5	81.2
코스닥	864.65	0.4	8.2	10.3	-6.6
대형주	2,144.57	0.5	9.7	10.2	-4.7
중형주	885.82	0.2	7.9	10.8	-1.5
소형주	2,400.72	0.4	5.3	9.6	-6.7
코스닥 150	1,495.95	0.3	9.3	10.5	-3.3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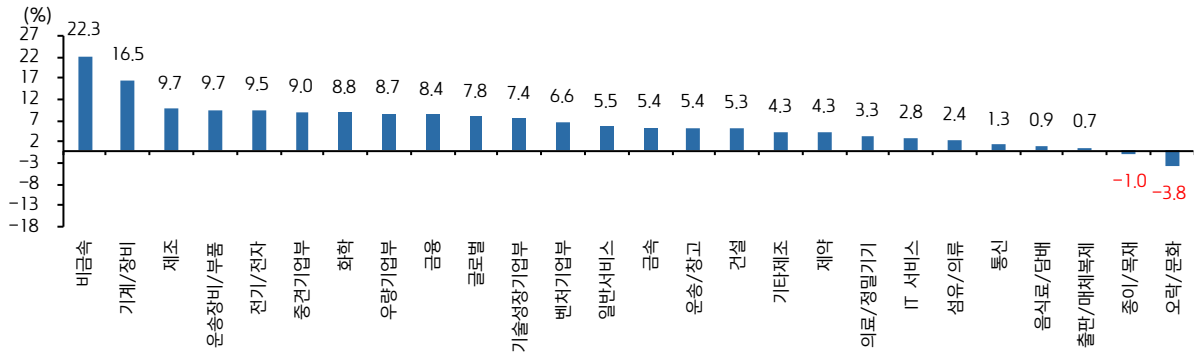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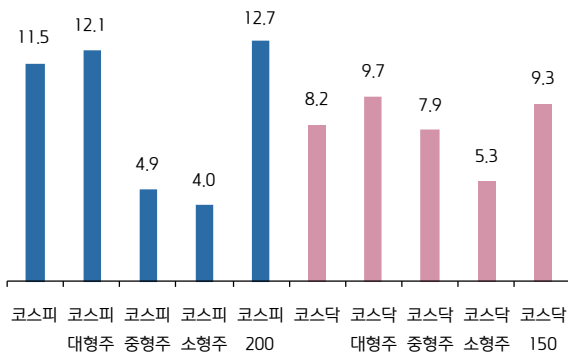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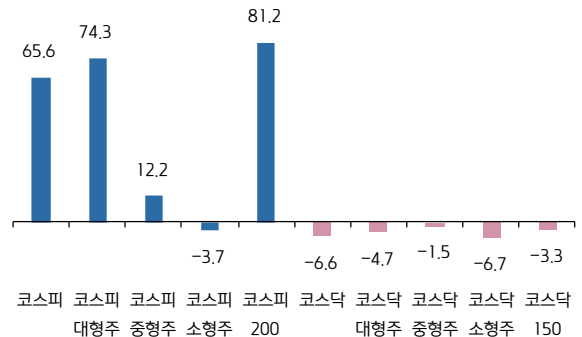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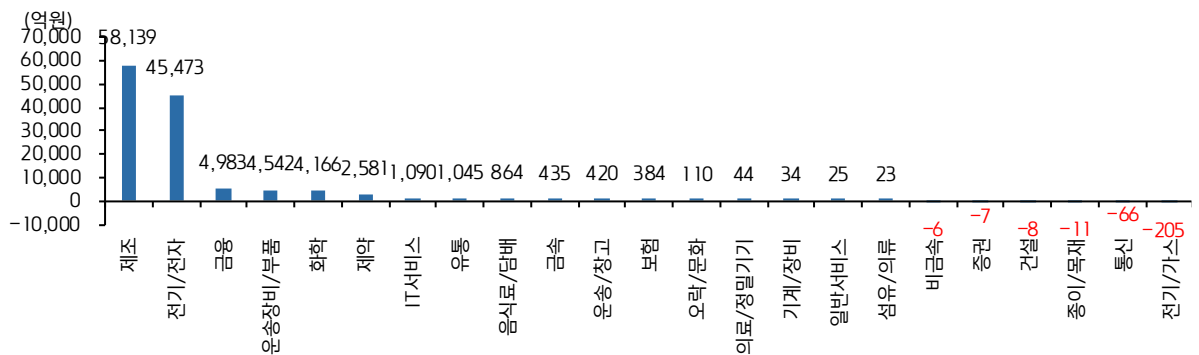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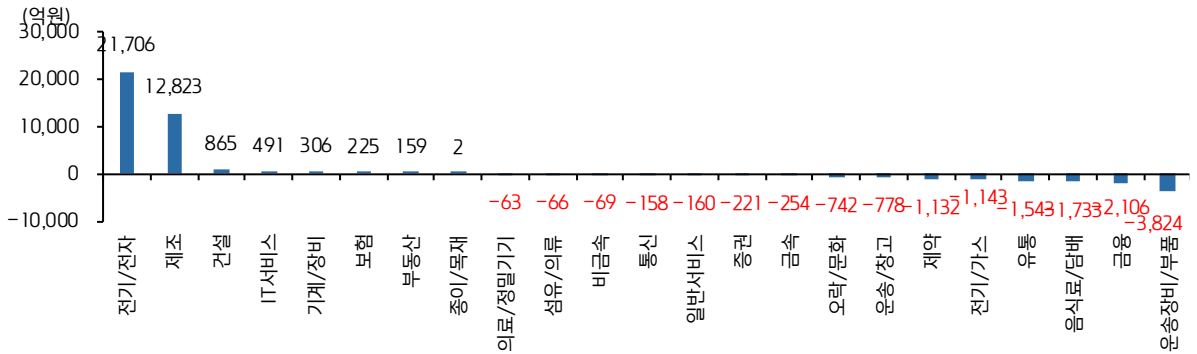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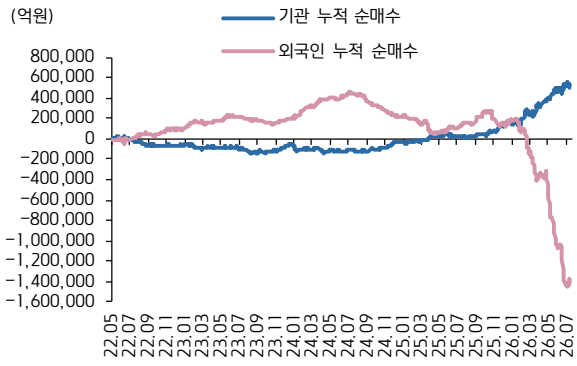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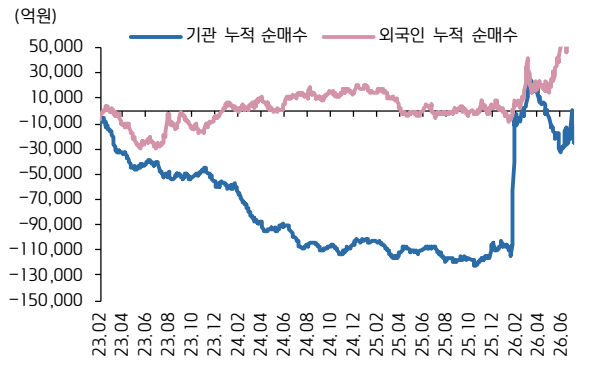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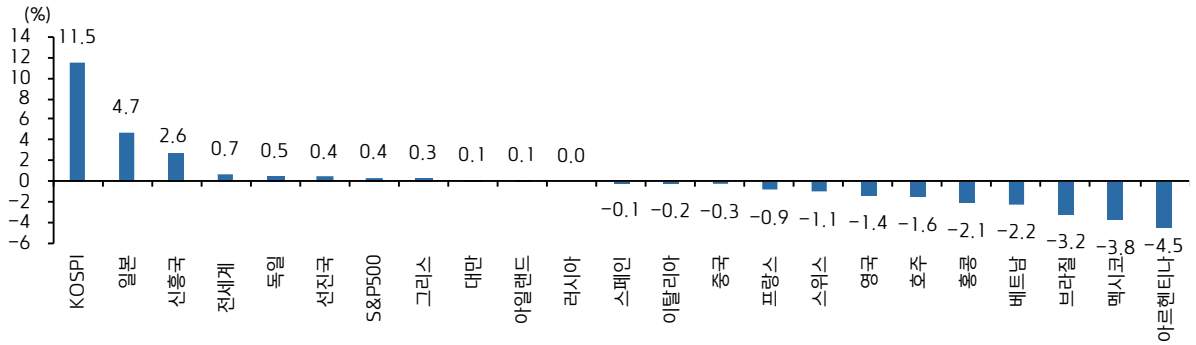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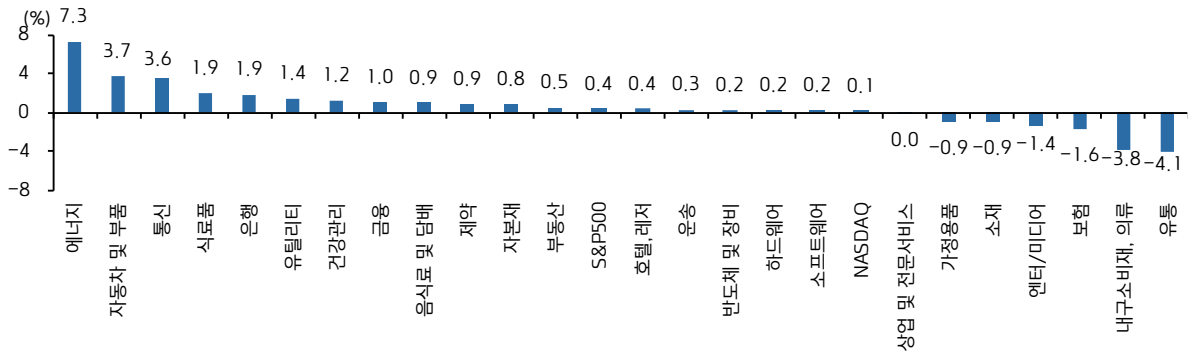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